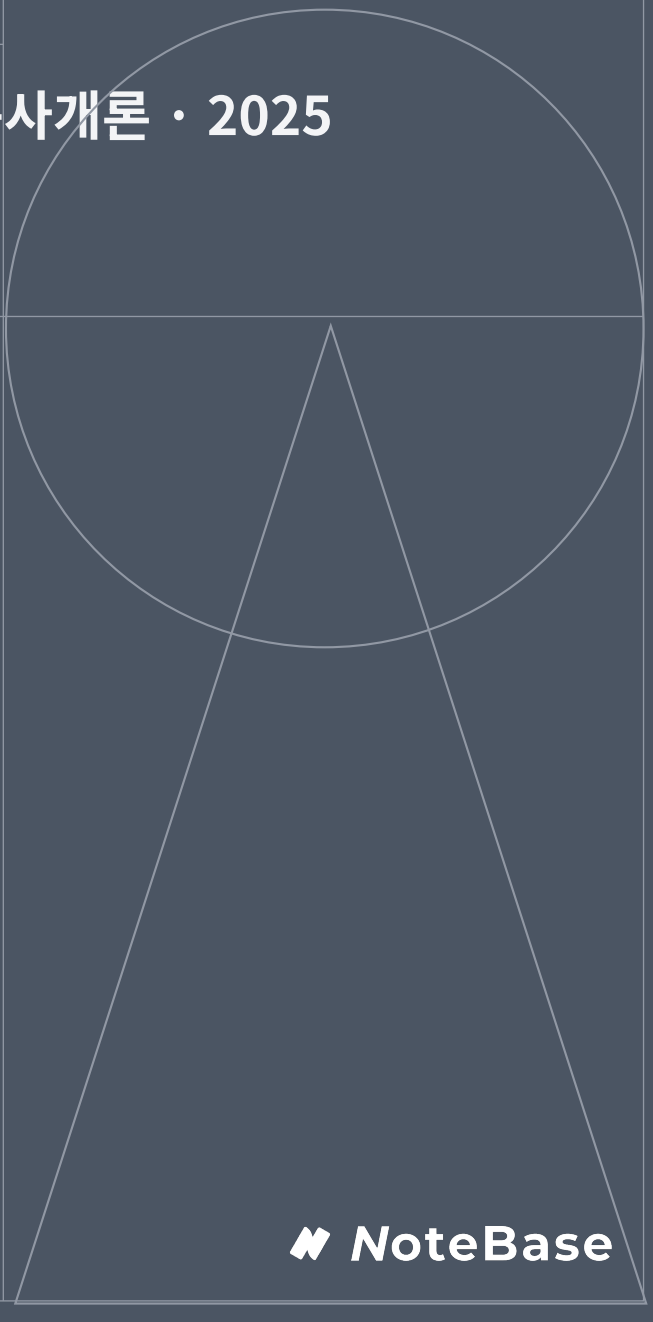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정보봉사개론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정보봉사개론 · 2025

공무원/지방직/9급 · 정보봉사개론 · 2025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 여러 텍스트에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고빈도어들로 색인과 검색 시 주제어로서 가치가 없는 단어들을 말한다.
◯ 한국어는 조사, 어미 등이 포함되며 영어는 관사, 전치사, 대명사, 접속사 등이 포함된다.

① 불용어(stop words)
② 스테밍(stemming)
③ 형태소(morpheme)
④ 통제어휘(controlled vocabulary)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여러 문서에 자주 나타나지만 주제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적어 색인·검색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어가 **불용어**이다. 지문의 조사·어미, 관사·전치사 등은 이러한 단어의 예이다.

핵심 풀이

불용어(stop words)는 여러 텍스트에 공통적으로 자주 나타나 **문서의 주제를 구별하는 가치가 낮은 단어**이다. 단순히 출현 빈도가 높다는 점보다 색인·검색에서 주제어로서 가치가 낮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지문은 한국어의 조사·어미와 영어의 관사·전치사·대명사·접속사를 그 예로 들고 있으므로 불용어를 설명한다.

스테밍(stemming)은 단어의 접사 등을 제거하여 **어간 형태로 환원하는 처리**이다. 검색 가치가 낮은 단어를 제외하는 불용어 처리와 달리, 관련된 단어 형태를 묶기 위한 처리이다.

형태소(morpheme)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언어 단위**이다. 조사·어미도 형태소에 포함되지만, 지문은 언어 단위의 크기가 아니라 색인·검색에서 제외할 단어의 특성을 설명한다.

통제어휘(controlled vocabulary)는 동일한 개념을 일관되게 표현하도록 선정·관리하는 용어 집합이다. **색인·검색에 사용할 표현을 통일**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주제어로서 가치가 낮은 단어를 가리키는 불용어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2. 다음 조건이 의미하는 CC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로 옳은 것은?

◯ 복사 및 배포 가능(반드시 원저작자와 출처 표시)
◯ 저작물 변경 또는 2차 저작물 생산 가능(반드시 원저작자와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불가능
◯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

① 

② 

③ 

④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원저작자와 출처 표시는 **BY**, 비상업적 이용은 **NC**, 2차 저작물에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조건은 **SA**이다.
변경을 허용하면서 동일한 이용조건을 요구하므로 변경금지인 ND와 구별한다.

NoteBase

핵심 풀이

저작자표시(BY): 사람 모양의 기호는 저작물을 복사·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이용할 때 **원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저작자표시 의무를 지키더라도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의 허용 범위는 함께 붙은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비영리(NC): 달러 기호에 빗금이 그어진 표시는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①·②에는 NC가 있지만, ③·④에는 NC가 없어 문제의 비상업적 이용 조건과 맞지 않는다.

동일조건변경허락(SA): 원형 화살표는 저작물을 변경하여 만든 2차 저작물을 배포할 때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②·④의 등호 모양인 ND는 변경한 저작물의 배포를 허용하지 않는 변경금지 조건이므로, 변경과 2차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문제의 조건과 다르다.

제시된 조건을 함께 나타내는 표시는 ①의 CC BY-NC-SA, 즉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이다.

NoteBase

문 3. 참고정보원과 주제 분야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참고정보원: ERIC, 주제 분야: 교육

② 참고정보원: KIPRIS, 주제 분야: 특허

③ 참고정보원: LISA, 주제 분야: 어문학

④ 참고정보원: MEDLINE, 주제 분야: 의학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LISA는 어문학이 아니라 **문헌정보학 분야**의 문헌을 다루는 색인·초록 정보원이다. 도서관 운영, 정보관리, 정보검색 등이 주요 수록 주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ERIC(Education Resources Information Center)은 **교육 연구와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교육 관련 학술논문과 보고서 등의 서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교육 분야와의 연결이 적절하다.

② O: KIPRIS는 국내외 **특허정보를 검색·열람**할 수 있는 지식재산정보 서비스이다. 특허 문헌을 찾아 기술 내용을 확인하거나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데 활용하므로 특허 분야와 연결된다.

③ X: LISA는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의 약자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색인·초록**을 제공한다. 도서관과 이용자, 정보관리, 정보검색 등에 관한 문헌을 다루므로 '어문학'을 '문헌정보학'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MEDLINE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이 제공하는 **생의학·보건 분야의 서지 데이터베이스**이다. 의학을 중심으로 관련 학술지 논문의 서지정보와 초록 등을 검색할 수 있으므로 의학 분야와의 연결이 적절하다.

NoteBase

문 4. 서지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서관의 물리적 경계와 기관적 한계를 넘어선 내용을 교육한다.

② 다양한 교육 내용이 필요해지면서 특정 주제에 관심있는 전문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교육을 지칭하게 되었다.

③ 학술활동에 필요한 연구 방법 및 주제 분야의 깊이 있는 정보탐색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친다.

④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보다는 도서관 소장자료의 이용 방법에 중점을 두는 기술적 교육을 강조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문제해결 능력보다는 도서관 소장자료의 이용 방법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서지교육은 소장자료 이용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도서관 안팎의 정보원을 탐색·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전문적인 정보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서지교육은 해당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만을 교육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도서관 내·외부의 정보원**을 찾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므로, 도서관의 물리적 경계와 기관 단위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선다.

② O: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일반적인 도서관 이용 안내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졌다. 서지교육은 연구·교육·학습 등 **특정 목적과 주제에 관한 정보요구**를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문 정보원과 탐색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가리킨다.

③ O: 서지교육은 학술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탐색하는 방법을 다룬다. 주제 분야에 적합한 서지·색인·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원을 선택하고 검색하는 방법을 가르쳐 **깊이 있는 주제 탐색과 연구**를 지원한다.

④ X: 소장자료의 위치나 이용 절차를 익히는 기술적 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은 서지교육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이다. 서지교육은 연구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 활용하도록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자료 이용 기술은 이를 위한 수단이며, 교육 범위도 해당 도서관의 소장자료에 한정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5. 정보서비스 평가 방법 중 비밀조사법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제 정보서비스의 상황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대리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가 자체에 대해 사서의 부정적 인식이 가중될 수 있다.

④ 사서가 모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비밀조사법은 사서가 평가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소처럼 응대하게 하여 **실제 정보서비스 상황에 가까운 자료**를 얻는 방법이다. 따라서 '실제 상황과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이 방법의 대표적인 단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비밀조사법은 대리 이용자가 일반 이용자처럼 질문하고, 사서가 평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평가를 의식해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응대하는 등의 행동 변화를 줄여 **일상적인 서비스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실제 정보서비스 상황과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표현은 '실제 정보서비스 상황에 가까운 평가가 가능하다'로 고쳐 이해한다.

② O: 대리 이용자는 정해진 질문을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사서의 응답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질문 방식이나 기록이 사람마다 달라지면 평가 결과에도 차이가 생기므로 **질문·응답 기록 방식에 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에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점이 단점이다.

③ O: 사서가 나중에 비밀조사 사실을 알게 되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사보다 **자신을 몰래 감시하거나 평가하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때 평가자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생겨 평가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 수 있다.

④ O: 사서가 평가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조사에 참여하게 되므로 **사전 설명과 동의**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평소의 응대를 관찰할 수 있다는 방법상의 장점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사한다는 윤리적 쟁점은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문 6. 참고정보원의 유형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아닌 것은?

① 권위

② 범위

③ 형식

④ 라이선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라이선스는 주로 전자정보원의 **이용 허락 범위와 제한 조건**을 확인하는 기준이다. 인쇄자료까지 포함하여 참고정보원의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일반 평가기준과는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권위는 **저자·편찬자·발행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누가 내용을 작성하고 검토했는지는 사전·백과사전·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참고정보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O: 범위는 정보원이 다루는 **주제·시대·지역과 내용의 폭과 깊이**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자료의 유형과 관계없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는지 살핀다.

③ O: 형식은 정보의 제시 방식과 매체가 **읽고 이용하기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인쇄자료에서는 글자와 지면 구성 등을, 전자자료에서는 화면 구성 등을 살필 수 있으므로 특정 유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④ X: 라이선스는 이용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전자정보원을 도입할 때 허용되는 이용 범위와 제한을 확인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일반 기준이 아니라, 주로 전자정보원의 이용 조건에 관한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7. 탐색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눈덩이굴리기 전략은 최소 자료 우선탐색 전략이라고도 하며 정보검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② 특정 패싯 우선탐색 전략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서 탐색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점진 분할 전략은 넓은 개념으로 탐색을 시작한 후에 다양한 제한기법을 사용하여 탐색을 좁혀 간다.

④ 블록만들기 전략은 개념분석 단계에서 식별된 단일개념별로 탐색이 완성된 후에 적절한 불리언 연산자를 사용하여 모든 세트를 결합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눈덩이굴리기 전략은 **관련 문헌의 색인어 등을 이용해 탐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검색될 자료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념부터 탐색하는 **최소 자료 우선탐색 전략**과는 다르며, 모든 검색어를 미리 준비하기보다 탐색 결과를 보면서 검색식을 발전시킨다.

선지별 해설

① X: 눈덩이굴리기 전략은 소수의 적합한 문헌을 찾은 뒤 그 문헌에 부여된 색인어와 제목·초록의 용어 등을 새 검색어로 활용하여 관련 문헌을 늘려 가는 방식이다. **최소 자료 우선탐색 전략과는 별개의 전략**이다. 최소 자료 우선탐색은 검색될 자료 수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패싯부터 검색한다. 또한 눈덩이굴리기는 검색어와 검색식을 사전에 모두 완성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색된 문헌을 검토하며 검색식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② O: 패싯은 탐색 주제를 구성하는 개념적 측면이다. 특정 패싯 우선탐색은 주제 중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부터** 검색한다. 그 결과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하면 나머지 패싯을 모두 추가하지 않고 탐색을 종료할 수 있다.

③ O: 점진 분할 전략은 넓은 개념으로 큰 검색결과 집합을 확보한 뒤, 다른 개념을 AND로 결합하거나 발행연도·언어·자료유형 등을 제한하여 **결과 집합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자료를 먼저 찾고, 초등교육과 특정 발행연도 조건을 차례로 적용하여 범위를 좁힐 수 있다.

④ O: 블록만들기 전략은 주제를 단일개념별로 나누고 **각 개념의 검색결과 집합을 따로 완성한 뒤 결합**한다. 같은 개념의 동의어나 유사어는 보통 OR로 묶고, 서로 다른 개념의 집합은 AND로 결합하여 각 개념을 함께 충족하는 자료를 찾는다.

NoteBase

문 8. 다음 조건에서 질의에 대한 재현율[%]은?

◯ 축적된 전체 문헌의 수: 500개
◯ 축적된 전체 적합 문헌의 수: 200개
◯ 검색된 적합 문헌의 수: 120개
◯ 검색된 부적합 문헌의 수: 150개

① 30
② 40
③ 60
④ 75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재현율은 **전체 적합 문헌 중 검색된 적합 문헌의 비율**이다. 적합 문헌 200개 중 120개를 검색했으므로 재현율은 60%이다.

계산 과정

재현율은 질의에 적합한 문헌을 얼마나 빠짐없이 검색했는지를 나타낸다. 전체 적합 문헌 수를 A, 검색된 적합 문헌 수를 B라고 하면, 백분율로 나타낸 재현율은 $R = \frac{B}{A} \times 100\%$이다. 분모는 **검색 여부와 관계없는 전체 적합 문헌 수**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A는 200개, B는 120개이므로 $R = \frac{120}{200} \times 100\% = 60\%$이다. 이는 전체 적합 문헌의 60%를 검색했고, 나머지 80개는 검색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전체 문헌 500개에는 부적합 문헌도 포함되며, 검색된 부적합 문헌 150개는 검색된 적합 문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수치는 재현율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계산된 재현율은 60%이므로 ③의 60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9. 인용색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CiteSeer는 NEC Research Institute가 개발한 서비스이다.

② Scopus는 Clarivate사가 서비스하는 웹 데이터베이스로서 인용색인의 기능을 제공한다.

③ KCI는 국내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각종 서지 및 인용 정보를 제공한다.

④ SSCI는 사회과학분야 주요 학술지의 서지 및 인용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Scopus의 제공사는 **Elsevier**이다. 인용색인 기능을 제공한다는 설명은 맞지만, 제공사를 Clarivate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해설

① O: CiteSeer는 **NEC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한 학술정보 검색 서비스이다. 웹에서 학술문헌을 수집하고 참고문헌을 자동으로 연결하여 문헌 간 인용관계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

② X: Scopus는 **Elsevier가 제공하는 초록·인용 데이터베이스**이다. 학술문헌의 서지정보와 인용관계를 제공하므로 인용색인 기능에 관한 설명은 맞다. 'Clarivate사가 서비스'를 'Elsevier사가 서비스'로 고쳐야 한다. Clarivate는 Web of Science와 그 안의 SSCI 등을 제공한다.

③ O: KCI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으로, **국내 학술지 논문의 서지정보와 인용정보**를 제공한다. 논문 제목·저자·발행연도 등으로 문헌을 확인하고, 피인용 횟수 등으로 다른 연구에서 인용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④ O: SSCI는 사회과학인용색인으로, **사회과학 분야 주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서지정보와 인용정보를 수록한다. 문헌 자체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논문 사이의 인용관계를 추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NoteBase

문 10. 모형별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브레이빅(Breivik)의 정보 리터러시 우산 모형은 데이터 리터러시 용어를 제시하였다.

② AASL-AECT는 도서관 활용능력과 IT 활용능력을 종합해 5개 정보 리터러시 기준을 제시하였다.

③ Big6 Skills 모형은 정보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용자의 수준에 따라 3단계, 6단계, 12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④ 쿨타우(Kuhlthau)의 ISP 모형은 도구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소통 리터러시를 핵심 리터러시로 제시하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Big6는 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6개 기본 단계**를 제시하며, 각 단계를 둘씩 세분하면 12개 하위 단계가 된다. 어린 학습자에게는 같은 과정을 **계획·실행·검토의 3단계**인 Super3로 단순화하여 제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브레이빅의 우산 모형은 정보 리터러시를 컴퓨터·도서관·미디어·네트워크·시각 리터러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를 아우르는 능력으로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이 우산 도식에 명시된 구성 요소가 아니므로, 이 모형이 데이터 리터러시 용어를 제시했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② X: AASL-AECT의 학생 학습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 기준은 **3개 범주, 9개 기준**으로 구성된다. 정보 리터러시, 독립적 학습, 사회적 책임의 각 범주에 기준이 3개씩 있다. 도서관과 IT의 활용능력만을 종합한 5개 기준이 아니라, 정보의 탐색·평가·활용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 학습과 책임 있는 정보 이용까지 다루는 기준이다.

③ O: Big6 Skills의 기본 구조는 과제 정의, 정보탐색 전략, 소재 파악과 접근, 정보 이용, 종합, 평가의 6단계이다. **각 기본 단계에 2개씩의 하위 단계**가 있어 세분하면 12개가 된다. 예를 들어 과제 정의는 정보문제를 정의하는 것과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뉜다. 어린 학습자를 위한 Super3는 이를 계획·실행·검토의 3단계로 단순화한다. 따라서 3·6·12단계는 이용자의 이해 수준과 설명의 상세도에 맞추어 같은 정보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④ X: 쿨타우의 ISP는 정보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고·감정·행동의 변화**를 함께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용자가 처음에는 불확실성을 느끼다가 탐색을 통해 주제의 초점을 형성하면서 생각이 구체화되고 자신감을 얻는 과정을 다룬다. 도구·정보·소통 리터러시라는 능력 유형을 핵심 요소로 분류한 모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문 11. 영국 대학 및 국립도서관협회(SCONUL)에서 제시한 '고등교육을 위한 정보리터러시 7대 기둥'의 영역별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위(scope): 기존지식 평가, 정보 격차 확인 및 식별

② 수집(gather): 필요 정보 소재 파악 및 접근

③ 평가(evaluate): 연구과정 검토, 정보자료 비교 평가

④ 관리(manage): 조사 정보 종합 및 생성 배포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조사 정보 종합 및 생성 배포'는 **발표(present)** 영역의 내용이다. **관리(manage)**는 수집한 정보를 전문적이고 윤리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범위(scope)는 **현재 알고 있는 것과 부족한 것**을 파악하는 영역이다. 기존 지식을 평가하여 정보 격차를 확인하고, 이를 메우는 데 필요한 정보의 유형과 이용 가능한 정보원을 파악한다.

② O: 수집(gather)은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실제로 접근하는** 영역이다. 검색 도구와 정보원을 활용하여 자료를 찾고, 원문을 읽거나 내려받는 활동이 포함된다.

③ O: 평가(evaluate)는 연구과정을 검토하고 정보와 데이터를 비교·평가하는 영역이다. 찾은 자료의 **정확성·관련성·신뢰성** 등을 판단하고, 연구 주제와 검색 전략에 비추어 적절한 자료인지 검토한다.

④ X: 관리(manage)는 정보를 전문적이고 윤리적으로 조직하는 영역으로, 체계적인 기록 유지, 출처 인용, 참고문헌 작성, 저작권과 표절 문제의 고려 등이 포함된다. 선지의 '조사 정보 종합 및 생성 배포'는 **발표(present)**에 해당한다. 발표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존 정보를 종합하여 새 지식을 만들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영역이다.

NoteBase

문 12. 정보검색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색 모형 중에 확률 이론을 사용하는 모형으로 추론망과 신념망 모형이 있다.

② 확률 검색은 확률 이론을 사용하여 질의에 대한 문헌의 적합성을 산출하는 검색 모형이다.

③ 확장 불리언 모형은 불리언 모형의 완전일치 장점과 벡터공간 모형의 용어가중치 장점을 결합하여 적용한다.

④ 벡터공간 모형은 문헌과 질의를 각 용어의 벡터로 표현한 다음 두 벡터 간의 유사도로 검색문헌들을 순위화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완전일치 장점'이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확장 불리언 모형은 **불리언 질의의 논리적 구조**에 용어가중치를 결합하고, 엄격한 일치 조건을 완화하여 **부분일치와 검색결과의 순위화**를 가능하게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추론망 모형과 신념망 모형은 문헌·질의·용어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표현하고, **확률적 추론**으로 문헌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두 모형 모두 확률 이론에 기초한 검색 모형이다.

② O: 확률 검색은 주어진 질의에 대해 각 문헌이 **적합할 확률**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 확률이 높은 문헌을 우선 제시하므로, 단순히 검색어가 포함되었는지만으로 검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③ X: 확장 불리언 모형이 결합하는 것은 불리언 모형의 **논리적 질의 구조**와 벡터공간 모형의 용어가중치 및 순위화 기능이다. 기존 불리언 모형은 질의의 논리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검색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결정한다. 확장 불리언 모형은 이 엄격한 조건을 완화하여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문헌도 점수를 부여해 순위화**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완전일치 장점'을 결합한다는 부분을 '불리언 질의의 논리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부분일치와 순위화를 지원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벡터공간 모형은 각 용어를 하나의 차원으로 삼고, 용어가중치를 성분으로 하여 문헌과 질의를 벡터로 표현한다. 두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해 질의와 더 유사한 문헌을 상위에 배열하며, 대표적으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한다.

NoteBase

문 13. 정보검색에서 용어가중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역문헌빈도가 큰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일 가능성이 크다.

② 역문헌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문헌에 출현한 용어의 가중치를 높게 만든다.

③ 긴 문헌에 출현한 용어의 가중치를 높이기 위해 문헌길이 정규화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용어출현빈도를 가중치로 적용하면 용어의 출현횟수가 적을수록 용어가중치가 높게 부여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역문헌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문헌에 출현하는 용어**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여러 문헌에 두루 나타나는 용어보다 특정 문헌을 구별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역문헌빈도가 큰 용어는 **소수의 문헌에 나타나는 용어**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많은 문헌에 나타나는 용어는 문헌을 구별하는 힘이 약하므로 역문헌빈도가 낮다.

② O: 문헌빈도는 해당 용어가 출현한 문헌의 수이고, 역문헌빈도는 이 수가 적을수록 커진다. 따라서 역문헌빈도를 가중치에 반영하면 **적은 문헌에 출현한 용어의 가중치가 높아진다**. 이는 그 용어를 포함한 문헌과 나머지 문헌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X: 긴 문헌은 단지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용어의 출현횟수가 커질 수 있다. 문헌길이 정규화는 이러한 **문헌길이에 따른 유리함을 보정**하여 서로 다른 길이의 문헌을 비교하려는 것이다. 긴 문헌에 출현한 용어의 가중치를 더 높이기 위한 처리가 아니다.

④ X: 용어출현빈도는 한 문헌 안에서 해당 용어가 나타난 횟수이다. 이를 가중치로 적용하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출현횟수가 많을수록 가중치가 높아진다**. 선지는 출현횟수와 가중치의 관계를 반대로 설명했다.

NoteBase

문 14. 디지털도서관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의미구조, 내용규칙, 구문이다.

② XML은 태그가 미리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태그를 정의할 수 있다.

③ XML 구문에서는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하여 더블린 코어 요소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다.

④ XML 스키마는 메타데이터의 기술과 교환을 위한 구조로 데이터를 주어, 술어, 목적어의 트리플 형식으로 기술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주어·술어·목적어의 트리플'은 **RDF**의 데이터 표현 방식이다. XML 스키마는 XML 문서에 사용할 **요소·속성·자료형과 구조적 제약**을 정의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자원을 기술할 항목과 그 사용 방식을 정한다. **의미구조는 요소의 의미, 내용규칙은 값을 선정하고 표기하는 방법, 구문은 기계가 읽을 수 있게 부호화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제목' 요소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하는 것과 제목 값을 어떻게 입력하고 XML 등으로 표현할지 정하는 것은 서로 구별된다.

② O: XML은 특정 용도의 태그 목록을 고정해 놓은 언어가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목적에 맞게 **이용자가 태그를 정의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마크업 언어이다. 다만 태그를 직접 정하더라도 시작·종료 태그의 대응과 올바른 중첩 등 XML 문법은 지켜야 한다.

③ O: XML 네임스페이스는 **네임스페이스 URI와 요소의 지역 이름을 결합**하여 요소를 고유하게 식별한다. 예를 들어 dc 접두어를 더블린 코어 네임스페이스에 연결하면 'dc:title'은 더블린 코어의 제목 요소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다른 어휘에서 사용하는 같은 이름의 요소와 구별할 수 있다.

④ X: 주어·술어·목적어로 이루어진 트리플로 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는 것은 **RDF**이다. 예를 들어 '도서 A의 제목은 디지털도서관이다'는 도서 A를 주어, 제목이라는 속성을 술어, '디지털도서관'이라는 값을 목적어로 표현할 수 있다. **XML 스키마는 XML 문서의 요소·속성, 배치와 출현 횟수, 값의 자료형 등을 정의**하며, 문서가 정해진 구조와 제약을 따르는지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

NoteBase

문 15. 참고정보서비스 모형 중 번기(Bunge)와 셰라(Shera)의 두 모형이 가진 공통점만을 모두 고르면?

ㄱ. 환류 과정을 제시한다.
ㄴ. 이용자 질문의 명확한 분석을 하나의 공식적인 단계로 제시한다.
ㄷ. 이용자 질문과 탐색 결과에 대한 연관성 평가를 포함한다.
ㄹ. 이용자 정보요구와 탐색 결과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포함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두 모형은 탐색 결과를 질문 및 실제 정보요구와 대조하고, 그 평가를 환류에 활용한다. 다만 **질문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별도의 공식 단계로 제시**한 것은 번기 모형의 특징이므로 공통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기별 해설

ㄱ. O: 두 모형 모두 평가 결과를 앞선 과정에 되돌려 반영하는 **환류**를 포함한다. 탐색 결과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질문이나 탐색 과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정보 제공만으로 끝나는 일방향 모형이 아니다.

ㄴ. X: 번기는 질문 접수 뒤에 **'질문 명확화'를 별도의 공식 단계**로 제시한다. 이용자가 말한 질문을 다듬고 보충 단서를 수집하여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분명히 하는 과정이다. 셰라 모형에서도 질문의 분석은 고려하지만, 이러한 명확화 과정을 별도의 공식 단계로 제시하는 것은 두 모형의 공통점이 아니다.

ㄷ. O: 두 모형 모두 탐색 결과가 **이용자가 제시한 질문에 부합하는지**를 살피는 연관성 평가를 포함한다. 주로 사서가 질문의 내용과 찾아낸 정보를 대조하는 평가이다.

ㄹ. O: 두 모형 모두 제공된 정보가 **이용자의 실제 정보요구를 충족하는지**를 살피는 적합성 평가를 포함한다. 이용자가 표현한 질문이 실제 요구를 충분히 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질문에 맞는 결과를 찾았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정보인지는 이용자의 판단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공통점은 ㄱ·ㄷ·ㄹ이며, 이를 모두 묶은 조합은 ③이다.

NoteBase

문 16. 인용색인의 유용성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용문헌만으로 검색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망라적인 검색이 가능하다.
ㄴ. 과거 문헌을 소급하여 다루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대한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다.
ㄷ. 어떤 문헌에 찾고자 하는 용어가 출현하지 않아도 인용 관계를 통해 풍부한 검색이 가능하다.
ㄹ. SCI와 A&HCI는 대표적인 인용색인이며 특정 언어에 편중되지 않은 출판물을 수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인용색인은 문헌 사이의 **인용 관계**를 따라가므로, 검색어가 직접 나타나지 않는 관련 문헌도 찾고 과거 연구의 흐름도 추적할 수 있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문헌이나 수록 범위 밖의 문헌이 빠질 수 있어 **망라적인 검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인용색인은 어떤 문헌이 다른 문헌을 인용한 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문헌을 찾도록 만든 색인이다.

ㄱ. X: 인용색인은 문헌의 참고문헌과 인용 관계를 검색의 연결 고리로 삼는다. 그러나 아직 인용되지 않은 새 문헌이나 색인의 수록 범위 밖에 있는 문헌은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인용문헌 검색만으로 해당 주제의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제어 검색 등과 함께 활용**해야 검색의 누락을 줄일 수 있다.

ㄴ. O: 한 문헌이 인용한 과거 문헌을 찾아가면 그 연구가 어떤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소급적 탐색**을 이어 가면 특정 주제의 초기 연구와 후속 연구 사이의 연결을 살펴보며 연구의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다.

ㄷ. O: 인용색인에서는 검색어의 출현 여부뿐 아니라 **문헌 사이의 인용 연결**을 이용해 관련 자료를 찾는다. 같은 주제를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했거나 찾고자 하는 용어가 문헌에 직접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미 찾은 관련 문헌의 참고문헌이나 그 문헌을 인용한 자료를 따라가며 검색을 확장할 수 있다.

ㄹ. X: SCI는 과학 분야, A&HCI는 예술·인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인용색인이다. 그러나 '특정 언어에 편중되지 않은 출판물을 수록한다'는 부분은 부적절하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문헌도 수록하지만 **영어 중심의 수록 경향과 언어별 포괄성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언어의 문헌을 고르게 포괄한다고 볼 수 없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ㄷ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7. 디지털도서관의 운영 영역별 표준을 모두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식별체계 – COUNTER, SUSHI

② 디지털 객체 패키징 – METS, OAI-PMH

③ 저작권 표현 언어 – ODRL, XrML

④ 통합검색 프로토콜 – SRU, MPEG-7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ODRL과 XrML은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권리와 이용 조건**을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언어이다. 콘텐츠의 복제·인쇄 등 허용되는 행위와 그 조건을 기술하므로 저작권 표현 언어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COUNTER는 전자자원의 이용 실적을 일관되게 집계·보고하기 위한 기준이고, SUSHI는 이러한 이용통계 보고서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프로토콜이다. 두 표준은 자원에 고유한 식별자를 부여하는 식별체계가 아니라 **이용통계의 작성·수집**에 관한 표준이다.

② X: METS는 디지털 객체를 이루는 파일과 기술·관리·구조 메타데이터를 함께 조직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XML 기반 표준으로, 디지털 객체 패키징에 해당한다. 그러나 OAI-PMH는 여러 저장소가 공개한 **메타데이터를 수확·수집하는 프로토콜**이다. 따라서 OAI-PMH까지 디지털 객체 패키징 표준으로 묶은 연결이 잘못되었다.

③ O: ODRL과 XrML은 디지털 자원에 대한 권리와 이용 조건을 표현한다. 누가 어떤 자원을 어떤 행위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이용에 어떤 제한이나 조건이 따르는지를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한다. 따라서 두 표준 모두 **저작권 표현 언어**에 해당한다.

④ X: SRU는 검색 질의를 보내고 검색 결과를 받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므로 통합검색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MPEG-7은 영상·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특성을 기술**하는 표준이다. 콘텐츠를 검색하는 데 활용될 수는 있지만 검색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는 통합검색 프로토콜은 아니다.

NoteBase

문 18.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은/는 참조대상이 되는 연계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식별자를 기반으로 상황인식(context-sensitive) 연계를 지원하는 아키텍처이다. (가)을/를 기반으로 한 (나)은/는 접근권한을 가진 이용자가 전자저널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링크를 제공한다.

① (가): OpenURL, (나): 링크리졸버

② (가): DOI, (나): 핸들시스템

③ (가): OpenURL, (나): 핸들시스템

④ (가): DOI, (나): 링크리졸버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OpenURL은 자원의 메타데이터와 식별자를 전달하여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활용하는 **링크리졸버**는 소속 도서관의 구독 범위 등을 확인해 이용 가능한 원문과 서비스 링크를 제공한다.

빈칸별 해설

(가) OpenURL: 논문 제목·저자·학술지명 등의 메타데이터나 DOI 같은 식별자를 전달하여 **상황인식 연계**를 지원하는 표준 프레임워크이다. 같은 논문이라도 이용자의 소속 기관과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DOI는 자원을 지속적으로 식별하는 식별자이며, OpenURL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러한 연계 프레임워크 자체를 뜻하지는 않는다.

(나) 링크리졸버: OpenURL로 전달받은 자원 정보를 도서관의 구독·소장 정보 등과 대조하여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링크**를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같은 논문을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더라도, 소속 도서관이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원문 링크를 안내할 수 있다. 핸들시스템은 DOI 등의 식별자를 등록된 위치 정보 등으로 해석하는 기반 시스템으로, 제시문의 도서관별 이용 가능 서비스 안내 역할은 링크리졸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는 OpenURL, (나)는 링크리졸버로 연결되며, 이 조합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분류기는?

◯ 대표적으로 단순히 학습문헌을 저장하는 사례기반 학습(instance-based learning) 방법을 채택한다.
◯ 학습문헌 집합으로부터 입력문헌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문헌들을 찾아내고, 이 문헌에 배정된 범주들에 근거하여 입력문헌의 분류 범주를 결정한다.

① 신경망(neural network) 분류기
② kNN(k-nearest neighbors) 분류기
③ 나이브 베이즈(naive Bayes) 분류기
④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분류기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학습문헌을 저장해 두고, 입력문헌과 **가장 유사한 k개 문헌의 범주**를 바탕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kNN 분류기이다. 별도의 일반화된 모형보다 저장된 사례를 직접 활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풀이

사례기반 학습: 범주가 알려진 학습문헌을 저장하고, 새 문헌이 들어오면 저장된 문헌과 비교하여 분류한다. 제시문의 '단순히 학습문헌을 저장'한다는 설명은 미리 일반화된 분류 모형을 만드는 것보다 **저장된 사례를 직접 활용**한다는 뜻이다.

kNN 분류: 입력문헌과 유사도가 높은 k개 학습문헌을 찾고, 이웃 문헌에 배정된 범주를 근거로 입력문헌의 범주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k가 3이고 가장 유사한 세 문헌 중 두 문헌이 경제, 한 문헌이 역사 범주라면, 단순 다수결 방식에서는 새 문헌을 경제로 분류한다. 이처럼 **가까운 이웃의 범주를 이용**한다는 점이 제시문의 두 번째 설명과 일치한다.

다른 분류기와의 구분: 신경망은 학습으로 조정한 연결 가중치를, 나이브 베이즈는 범주별 확률을, 의사결정나무는 속성에 따른 분기 규칙을 이용한다. 이들과 구별되는 kNN의 판단 근거는 새 문헌과 유사한 학습문헌들의 범주이다.

NoteBase

문 20. ACRL의 개정된 정보리터러시 프레임워크(2015)의 주요 개념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권위 형성과 상황 의존성

② 탐구를 통한 연구

③ 대화를 통한 학술 연구

④ 전략적 연구 성과 평가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전략적 연구 성과 평가'는 ACRL 프레임워크의 개념요소가 아니다. 해당 개념은 **'전략적 탐색으로서의 검색'**으로, 검색 결과에 따라 검색어·정보원·검색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보의 권위 형성과 상황 의존성'은 권위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며, 정보의 이용 목적과 맥락에 따라 판단된다는 개념이다. 정보원의 권위는 고정된 서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정보 요구와 이용 맥락**에 비추어 평가된다.

② O: '탐구를 통한 연구'는 질문을 제기하고 조사하면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가는 반복적 과정으로 연구를 이해한다. 기존 정보를 그대로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발견한 정보의 공백이나 모순을 바탕으로 **연구 질문을 발전**시킨다.

③ O: '대화를 통한 학술 연구'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학문적 지식이 발전한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대화는 구두 대화만이 아니라 **선행 연구의 인용·비판·논의**를 통한 학술적 교류도 포함한다.

④ X: '전략적 연구 성과 평가'는 여섯 개념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바른 개념은 **'전략적 탐색으로서의 검색'**(Searching as Strategic Exploration)이다. 이는 연구 성과를 평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탐색하고 검색 결과에 따라 검색어와 검색 전략을 수정하는 비선형적·반복적 과정이라는 뜻이다.

NoteBase